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한 상실감, 우울감의 매개효과

이은아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Loss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Eun-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상실감 및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인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별·유형별 층화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10개소) 이용자인 65세 이상 노인 400명 대상으로 1:1 심층면접 조사하여 총 36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SPSS 25.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과 Bootstrapping의 분석방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인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우울감은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 및 우울감이 자살생각으로 연쇄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노인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 자살생각, 부분매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ath through which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 sense of loss, and depression lead to suicidal ideation by verifying the influence of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sense of loss and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1:1 in-depth interview survey of 400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using stratified sampling methods by region and type of 31 city, county, and district the elderly welfare welfare centers(10 locations) in Gyeonggi-do. As a result, a total of 360 samples were finally analyzed. It was ver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d bootstrapping analysis methods using SPSS 25.0 and AMOS 23.0.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elderly experienced discrimination, the higher the suicidal ideation. Second, the effect of sense of loss was partially mediated on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Third, the feeling of depression was found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elderly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to alleviate the suicidal ideation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and sense of loss and depression to prevent suicide among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Sense of lo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Partial mediation

*This is some excerpt from author's doctoral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Eun-A Lee(364379@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0,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평균 기대수명 90세를 넘고 2045년 노인인구가 37.0%로 전 세계의 최고령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경력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이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전국 46.6명(인구 10만명당)으로 OECD 평균 17.2명 대비 약 2.7배 이상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0대 이상 67.4명, 70대, 46.2명, 60대 33.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일수록 자살률이 증가하였다[3].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6.7%가 응답하였으며, 이중 직접적인 자살시도를 경험한 노인은 13.2%였다[4]. 또한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5.1%가 응답했으며, 이유로는 외로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다[5]. 자살생각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나 태도로 자살시도와 자살로 연쇄되는 예측지표이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노인들이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원인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노인자살은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요인(연령, 성별, 동거가족, 건강상태 등)[6-8]과 심리사회적 요인(역할과 관계의 상실, 은퇴, 우울, 사별, 학대 및 차별경험 등)[9-11]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차별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에게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상실감 등이 극대화되어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13].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약 3명(27.4%)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조사되었다[5]. 2016년 당시 12.3%, 2018년 13.4%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역할 축소, 사회적 규범(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부양부담 등 노인의 부정적 인식 증가로 차별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노년기는 경제활동 축소, 신체적 건강 약화, 사회적 관계망 약화, 정서적 고립감 등을 동시에 경험하는

상실기라고 할 수 있다[14].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의 약화는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삶의 허무감, 우울감 등이 동반되어 자살생각을 야기할 수 있다[11,15].

현재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직면으로 언택트 신조어가 생기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문화를 기반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20년 7월 정부 발표에 따른 디지털 뉴딜 정책과 더불어 향후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노인세대는 더욱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의 상실감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5].

이렇듯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해 대처 과정에서 삶의 목표와 의미에 대해 상실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건강의 위협인 우울감을 불러와 자살생각을 초래할 수 있다. 우울감은 자살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 결과에서 입증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8,11,12]. 그동안 선행연구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의 단면적인 인과적 관련성을 규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인 노인차별, 상실감, 우울감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노년기 동반되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상실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우울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이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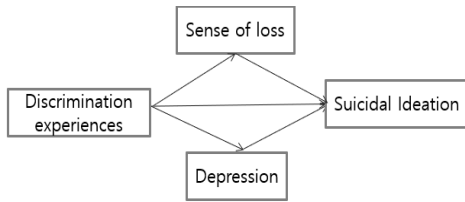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9월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재 노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위치별(경기북부/경기남부), 유형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로 층화표집(10개소)과 성별과 연령으로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조사에 동의한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고 최종 분석 360부를 활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노인차별경험

본 척도는 Palmore(2001), Kim(2002), Won(2005)의 척도를 토대로 총 17문항을 구성하였다[13,16,17]. 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으며,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905, Bartlett's $\chi^2=2299.988$, $p<.001$).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alpha 계수는 .881이며, 질문 문항의 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경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3.2 자살생각

본 척도는 Kim(2002)와 Shu(2005)이 사용한 자살생각 척도를 토대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10,18]. 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으며,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811, Bartlett's $\chi^2=1338.006$, $p<.001$).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alpha 계수는 .778이며, 질문 문항의 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3.3 상실감

본 척도는 Lee(2014), Jung & Lee(2009), Kim et al (200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4문항을 구성하였다[19-21]. 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으며,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892, Bartlett's $\chi^2=2346.926$, $p<.001$).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alpha 계수는 .893이며, 질문문항의 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3.4 우울감

본 척도는 Byun(2005), Kang(2013), Lee(2014)의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9개 문항을 구성하였다[22-24]. 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으며,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839, Bartlett's $\chi^2=1111.304$, $p<.001$).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alpha 계수는 .803이며, 질문문항의 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넷째,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AMOS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파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analysis로 효과를 분해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노인 129명(35.8%), 여성노인 231명

(64.2%)이며, 연령은 65-69세 75명(20.8%), 70-74세는 117명(32.5%), 75-79세는 100명(27.8%), 80세 이상은 68명(18.97%)으로 평균연령은 74.4세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노인이 150명(41.75%), '배우자가 없다'는 노인 210명(58.38%)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 비율이 약간 높았고, 동거유형은 '독거노인' 117명(32.5%),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243명(67.52%)으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69명(46.9%)이 '보통이다'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건강하다' 113명(31.4%), '건강하지 않다' 78명(21.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60)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29	35.8
	Female	231	64.2
Age	65-69	75	20.8
	70-74	117	32.5
	75-79	100	27.8
	80<	68	18.9
Spouse	Yes	150	41.7
	No	210	58.3
Live together family	Single	117	32.5
	With Spouse & Etc	243	67.5
Subjective Health	Poor	78	21.7
	Normal	169	46.9
	Good	113	31.4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 자살생각 변수들간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차별경험 평균값은 2.38(SD=.634), 상실감의 평균값은 2.81(SD=.722), 우울감의 평균값은 2.55(SD=.652), 자살생각의 평균값은 2.02(SD=.686)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sics of Major Variables (N=360)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Discrimination Experience	2.38	.634	.088	-.394
Sense of loss	2.81	.722	-.045	-.236
depression	2.55	.652	.023	-.296
Suicidal Ideation	2.02	.686	.438	-.346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에 대한 정상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7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3.3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차별경험은 상실감($r=.563, p<.01$) 및 우울감($r=.455, p<.01$)과 자살생각($r=.350, p<.01$)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노인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상실감, 우울감,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상실감은 우울감($r=.667, p<.01$)과 자살생각($r=.407, p<.01$)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생각은 우울감($r=.514, p<.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N=360)

Variable	1	2	3	4
1	1			
2	.563**	1		
3	.455**	.667**	1	
4	.350**	.407**	.514**	1

p<.01**
 1. Discrimination Experience 2. Sense of loss
 3. Depression 4. Suicidal Ideation

3.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3.4.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 자살생각을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2=3526.066, df=1074, p=.000, SRMR=.112, TLI=.682, CFI=.697, RMSEA=.080$ 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가 적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집중타당도가 다소 낮은 변수를 순차적 제거하여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고, 적합도 지수와 타당도가 적합한 수정 측정모형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수치는 $X^2=459.668, df=222, p=.000, SRMR=.084,$

TLI=.935, CFI=.943, RMSEA=.055 등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초기모형보다 적합도가 상승하여 모형이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X ²	df	p	SRMR	TLI	CFI	RMSEA
Initial model	3526.066	1074	.000	.112	.682	.697	.080
Modified model	459.668	222	.000	.084	.935	.943	.055

3.4.2 구조모형 분석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과 우울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검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beta = .192(t=3.041, p<.01)$ 만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beta = .127(t=2.423, p<.05)$ 만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실감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울감도 자살생각에 $\beta = .528(t=7.852, p<.001)$ 만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노인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차별경험은 상실감에 β

$= .370(t=5.954, p<.001)$ 만큼의 정(+)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상실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노인차별경험은 우울감에 $\beta = .467(t=6.954, p<.001)$ 만큼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노인차별경험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인 상실감과 우울감 및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각각 13.7%, 21.9%, 46.8%로 확인되었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E	C.R.
Discrimination Experience → Suicidal Ideation	.233**	.192	.077	3.041**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103*	.127	.043	2.423*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485***	.528	.062	7.852***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nse of loss	.554***	.370	.093	5.954***
Discrimination Experience → Depression	.619***	.467	.089	6.954***

p<.05*, p<.01**, p<.001***

구조모형 분석 결과와 추정된 주요 변수 간의 경로계수는 Fig. 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 및 우울감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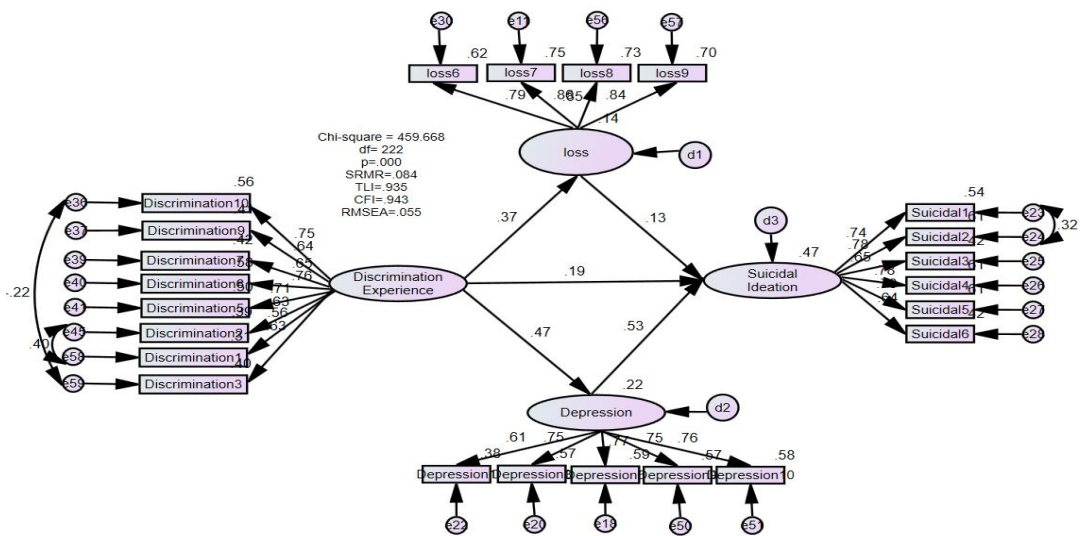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3.4.3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첫째, 노인차별경험은 상실감에 직접효과($\beta = .370, p < .05$)가 나타났고,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직접효과($\beta = .127, p < .05$)를 보여주고 있다.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인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효과($\beta = .192, p < .05$)가 있고, 간접효과($\beta = .046, p < .05$) 및 총효과($\beta = .238, p < .05$)를 보여주고 있다. 즉,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상실감이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노인차별경험은 우울감에 직접효과($\beta = .467, p < .05$)가 나타났고,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직접효과($\beta = .528, p < .05$)를 보여주고 있다.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인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효과($\beta = .192, p < .05$)가 있고 간접효과($\beta = .146, p < .05$) 및 총효과($\beta = .438, p < .05$)를 보여주고 있다. 즉,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nse of loss	.370*		.370*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127*		.127*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192*	.046*	.238*
Discrimination Experience	→	Depression	.467*		.467*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528*		.528*
Discrimination Experience	→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192*	.146*	.438*

$p < .05^*$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10개소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

신(65세 이상) 36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상실감 및 우울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상실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사회의 노인자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자살률이 점차 높아지고, 사회적 차별경험을 하는 노인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심화될수록 자살생각, 자살 시도,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9,12,17]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노인의 차별경험은 연령에 의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차별(언어적 · 신체적 · 정서적 · 대인관계적) 혹은 사회적 차별(경제적 · 사회적 재화나 용역의 이용 · 대중매체 · 생활편의적)로부터 부당한 사건과 행위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15].

특히, 노년기의 특성상 신체적 기능 저하,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역할 축소, 질환 등의 상대적 취약함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도움받는 상황으로 권력의존관계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차별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차별은 노인에게 절망과 우울감을 야기시키고 자살생각으로 유발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노인의 차별경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부정적 권력 의존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노인의 소득보완정책 개선 및 강화(예-기초연금 대상확대, 고령층의 노동시장 확대 및 각종 임금보조제도 마련 등)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돌봄의 제도적 확대(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보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간의 단계적·순환적 통합실행체계 구축 등)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노인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제어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상실감은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차별을 경험할수록 상실

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4,21]와 상실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선행연구[8,10,19]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15,25]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상실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 있기에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시기인 만큼 마을단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고 위기상황에서의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와 사회복지기관(사회적관계망 형성프로그램 등) 차원에서 예방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노인의 우울감은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8,11,12]을 보고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23,24]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자살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먼저 우울감의 조기발견과 동시에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 우울감 예방(도움요청 등)과 자가진단(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실천개입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차별과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상실감 및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였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혀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에 대한 일반화로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보다 연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차별경험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기에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노인차별예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질적조사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kostat.go.kr/>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ecurity
<http://www.mois.go.kr/frt/a01/frtMain.do>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9). 2019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and Social Research. (2019). 2018 Survey on Senio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5] Seoul Welfare Foundation. (2020). 2020 Survey on Seniors in Seoul.
- [6] H. K. Lee, M. S. Kim, S. S. Chio & M. K. Choi. (2014). Eco-Systematic Analysis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Elderly Suicide Ide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3), 430-451.
DOI : 10.15709/hswr.2014.34.3.430
- [7] S. S. Chang, J. A. C. Sterne, B. W. Wheeler, T. H. Lu, J. J. Lin, & D. Gunnell. (2011). Geography of suicide in Taiwan: Spatial patterning and socioeconomic correlates. *Health and Place*, 17, pp.641-650.
DOI : 10.1016/j.healthplace.2011.01.003
- [8] J. H. Bae. (2009).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4, 49-70.
DOI : 10.21194/kjgsw..44.200906.49
- [9] G. S. Choi. (2018).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Loss of Role,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Uiduk University, Gyeongju.
- [10] H. S. Kim.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82.
- [11] S. I. Nam, J. H. See, H. E. Jeong & J. S. Chae. (2019). Meaning in Lif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 Age :A Comparative Study of Living Alone and Not Living Alone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4(2), 163-192.
DOI : 10.21194/kjgsw.74.2.201906.163
- [12] H. J. Shin. (2002). Effects of the Elderly's Ageism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 and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6, 191-216.

DOI : 10.21194/kjgsw.74.2.201906.163

- [13] W. Kim. (2003). An Exploratory Study on Ageism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21-35.
- [14] I. Y. Jung. (2019). The Influence of the Social Participation on the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3), 301-315. DOI : 10.21184/keia.2019.4.13.3.301
- [15] E. A. Lee. (2020). The Effects Elderly's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ense of Los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 361-371. DOI : 10.15207/JKCS.2020.11.11.361
- [16] E. B. Palmor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17] Y. H. Won. (2005).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21, 319-339.
- [18] H. J. Shu. (2005). *Social Work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Suicide in the Elderly : with special reference to Factors Affecting on Elderly Suidid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BuSan University, BuSan.
- [19] H. K. Kim, S. C. Lee & J. S. O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ef of Loss and the Sense of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63(2), 17-32.
- [20] M. K. Jung & K. M. Lee.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Sense of Loss Scale for Korean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2), 397-416.
- [21] J. E. Lee. (2014). *The Influence of Sense of Lo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22] H. S. Byun. (2005). *A Multi-Layered Analysis (HLM)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in Unreported Welfare Facilities: Focusing on Individual Factors and Facility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 [23] W. S. Kang. (2013).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focusing on elder abuse, self-esteem, physical health, and psychosocial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 [24] S. J. Lee. (2014). *Service linkage plan for solving complex problems of the elderly: Focusing on income, abuse, depression, and suicid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University, Pusan.
- [25] L. C. Kim. (2017). *The Effects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the Seniors Mental Health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los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이 은 아(Eun-A Lee)

[상임]



- 2003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 부(문학사)
- 2010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복지, 가족복지, 사례관리
- E-Mail : 364379@hanmail.net